

# 청정 완도해역 ‘붉은 바다’ 공포

적조 확산...육상 양식장서  
광어·치어 1만여마리 폐사  
이번주가 고비...방제 총력

7일 오전 완도 전 해역으로 적조가 확산되면서 육상 양식장에서 첫 적조 피해가 신고됐다. 적조 밀도가 전해지고 조류가 약한데다 수온도 섭씨 23~25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가 이어질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번주가 적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바지선, 방제선, 행정선 등 10여 척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의 인력을 매일 투입하며 양식장 주변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적조 경보 발령 이후 적조가 완도 해역 전체에서 발견되고 밀도가 420~9200코를로디니움(cell/ml)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 경남 해안 일대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7일 새벽에는 완도군 신지도 동고리 앞바다의 육상 양식장 2곳에서 적조 폐사 신고가 접수돼 완도군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다. 신지도 인근 해역 바다 색은 진갈색으로, 적조 밀도가 최고 9000코를로디니움을 넘고 있는 곳이다. 광어를 양식하고 있는 2곳에서 폐사한 치어 및 성어가 1만 여마리에 달하고 있다. 완도군은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육상 양식장에 적조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조에 의한 폐사인 지 여부는 다음주께 판명된다.

지난 5일 이후 적조 밀도가 서서히 상승하자 완도군은 전 해역의 해상가두리양식장 주변을 중심으로 7911t의 황토를 집중 살포하면서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류가 약한 소조기가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주를 최대 고비로 적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배정택(56) 완도군 해양수산과장은 “완



“청정해역을 지켜라”

완도 전 해역으로 적조가 확산된 7일 완도군 방제선이 신지도 일대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이날 새벽 완도군 신지도 동고리 해역의 바닷물을 끌어 쓴 한 육상 양어장에서 광어 치어와 성어 등 1만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전남에서는 첫 적조피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 해역 전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라며 “각 실과는 물론 읍면 직원들이 모두 비상근무에 들어가 새벽 2시까지 양식장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도 지난주부터 적조피해 야간기동반을 가동해 육상 및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점검하고 있다. 적조가

주로 오후와 밤 시간대 나타나고 밀도가 짙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완도읍~신지도~약산도~생일도~금일도 등 완도 전 해역에 대해 예찰 활동을 벌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임은영(34) 수산연구사는 “군데군데 밀도가 매우 높은 적조가 형성돼 있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양식장을 덮치지 않는 것일뿐”이라

며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번주 보유중인 황토 2만4535t를 적조 발생 해역에 집중 살포하는 한편 양식장 어민들에게는 자체적인 방제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 ejchung@

## ‘아트광주15’ 관람객 4만여명...역대 최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미술장터 ‘아트광주15’가 지난 6일 ‘흥행 물이’에 성공하며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6면〉

주관사인 광주미술협회(회장 나상옥) 추정이지만 예년에 비해 전체 판매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작품 판매

가 우선시 되는 아트페어의 지속 개선을 위해 고무적인 성과였다.

이번 아트페어는 작가 부스를 도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구름 관람객’을 모았다는 평을 받았다. 참가 부스는 작가 101개, 갤러리 78개 등 총 179개가 운영됐으며 전시작은 2200여점이었다.

올해 입장객은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지난해 3만명에 비해 약 33.3% 증가한 수치다. 2013년에는 2만명, 2012년에는 1만5000명이 다녀갔다.

전체 판매액도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트페어 폐막 후 사후에 판매되는 금액 등을 합산해야 되지만 광주미술

협회의 현장 조사 결과 모두 400여점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아트광주 작품 판매액은 2010년 42억원, 2011년 15억 원, 2012년 10억원, 2013년 11억8000만원, 2014년 10억원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트페어 6년만에 최대  
작품 판매 30억원 추산

## 100% 국민 경선 결선투표제 도입

새정치 혁신위, 총선 공천 방안 발표 ... 정치신인에 가산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100% 시민참여 경선과 결선투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내년 총선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10차 혁신안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며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당 혁신위는 또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후보자로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현역 의원들의 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치신인에게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했다.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

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만 29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 연령별로 차등화했다. 그러나 임기의 %를 차지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위에 배치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당선안정권의 20%는 순위투표와 상관없이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5년여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5년만에 최고치인 1200원대에 진입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203.77원으로 전 거래일 증가보다 10.3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 증가가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22일(당시 증가 1204.0원) 이후 약 5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29일 증가 1068.60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상승세로 돌아선 지 불과 4개월 만에 12.6%(135.1원) 올랐다. 6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이어 7월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 고조, 8월 위안화 절하를 포함한 중국발 쇼크와 북한의 도발 등 연달아 등장한 이슈들이 원화에 악세 압

력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엔 재정환율도 다시 100엔당 1000원대를 돌파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해 10월 17일 전고점인 1004.14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900원대에 머물다가 올해 8월 이후 급등, 두 번째로 1000원대를 넘겼다.

/오광복기자 kroh@·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세상을 키우는 대학  
**조선대학교**  
★★★★★★  
국책사업 6관왕 달성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지방대학 특성화(CK-1) 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함께 나눠 더 큰 세상을 만드는  
“함께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국책사업 6관왕 달성(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유일)
- 국책사업비 총 2,000억 원 수주(최근 3년)
-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 전국 1위
- 재정건정성 우수대학
- 의대·치대·약대·보건대학 등 15개 단과대학을 보유한 초대형 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수시모집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 일반학생전형  | 2,240명               |
| 학생부종합전형 | 403명(일반)<br>320명(특별) |
| 지역인재전형  | 35명                  |
| 군사학과전형  | 35명                  |
| 특기자전형   | 109명                 |
| 계       | 3,142명               |

기간 : 2015.9.9(수) ~ 9.15(화)  
인터넷접수 : [www.chosun.ac.kr](http://www.chosun.ac.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